

# 공연 즐기며 여수 한바퀴... '낭만버스' 인기

시티투어+문화예술공연  
매주 금·토·공휴일 운영  
관광객 여수 매력에 흠뻑  
8월 이어 추석연휴 매진



여수 낭만버스를 타기 위해 관광객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버스로 도심을 돌면서 공연을 즐기는, 이른바 '낭만버스' - 시간을 달리는 버스 카'가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낭만버스는 시티투어에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것으로, 첫 운영을 시작한 지난 8월 만석을 기록했고 9월 탑

승률도 95%에 달했다. 추석 연휴에도 전 좌석이 매진됐다.

오는 12월 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7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모

두 39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버스를 타고 이순신광장을 출발, 소호 동동다리~돌산대교~거북선대교~종포 해양공원 등을 돌아보는 동안 노래와 함께 뮤지컬 형식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거문도 녹산곶 일대에 전해오는 인어 '신지끼', 악공청(조선시대 음악 담당 기관) 등 여수 역사와 설화를 접목했다. '신지끼'는 전설 속 인어로, 큰 풍량이 일어나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이를 섬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가족, 친구, 연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와 여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수 퀴즈관광 등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유명 관광지를 돌면서 공연을 즐기는 낭만버스를 타고 볼 수 있는 여수 밤바다 야경.

〈여수시 제공〉

## 지방자치 과거·현재·미래 한눈에

26~29일 여수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 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서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우수 지방자치 정

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가치 있는 향토자원을 체험하는 축제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한다. 주최 측은 26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전

시마당, 정책세미나, 우수사례 발표, 참여마당, 부대행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부스는 지방 4대 협의체·전남도 특별홍보관 등 122개, 향토자원·마을기업 전시관 104개,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례관 64개, 먹거리 장터 10개, 국제관 10개 등 총 310여개에 달한다. 또 지방자치 정책 공유, 지방자치 발전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26일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주민자치 토론회와 주민자치 특강도 마련된다. 27일에는 주민자치를 위한 청소년 역할

과 지방자치 방향성을 모색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현장 특강이 이어진다. 박람회장 내 특설무대에서 지방자치 스무개 넘기,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등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동도·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 견학, 전국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버스킹, 시립예술단 공연, 공예품 만들기, 돌산 것김치 담그기 등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역 문화예술인 열정과 혼 보여준다

# 여수예술제

31일까지 공연·그림전 다채

여수 예술인들의 축제 '제 41회 여수예술제'가 오는 31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예술제는 한국예총 여수지회 8개 지부 주관으로, 국악·무용협회는 각각 20일과 28일 진남문화회관에서 풍류의 향연, 청소년 무용제를 진행한다. 문인협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시화전을 열고 사진협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사진협회 회원전을 진행한다. 미술협회는 26일부터 31일까지 여수사랑 작은 그림전을 개최한다. 한국예총 여수지회 관계자는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열정과 혼이 담긴 작품과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시 "인구 늘리기 묘책 없나요"

다양한 정책 불구 매년 감소세...대책 마련 전전긍긍

백약이 무효? 여수시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음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여수시의 9월 말 인구는 28만7075명(28만900명)→2015년(29만168명) 등 감소하다. 지난해 말(28만8988명)에는 28만명대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4월(28만7969명)→5월(28만7840명)→6월(28만7607명)→7월(28만7479명) 등으로 한 차례도 늘지 않았다. 특히 여수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늘어나는 조짐이 없다는 점에서 인구늘리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도 몰려도 정작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100억원에 이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펼쳐도 눈에 띄는 인구 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구늘리기 방안'을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까지 구하고 청년창업의 꿈의 공간인 '청년몰'을 만든다며 적극 알려도 효과가 당장 나타날 리 없다. 여기에 여수산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새 내뿜는 공해물질로 인근 주민들이 매년 1453억원 가량 의료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여수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남 전체의 3분의 1 규모에 달할 정도로 대표 도시라는 점에서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